보시자, 수자, 시물 모두 청정해야



新 불교사자성어

⑨ 삼륜청정(三輪淸淨)

삼륜청정(三輪淸淨)은 '보시를 하는 사람(施者)' 과 '보시를 받는 사람(受者)',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施物)',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하지 않으면 훌륭한 보시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진정한 보시에 대한 대승불교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시의 대전제를 제시한 사자성어인데, 키포인트는 '청정에 대한 관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법과 관점으로 보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삼륜(三輪)이 청정(淸淨)한 보시인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타인에게 금전이나 물건 등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경제적인 보시(財施, 재시) 외에도 법문이나 가르침을 베풀어 주는 보시(法施, 법시),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공포증을 제거해 주는 보시(無畏施, 무외시)를 이야기한다.

또 대승불교에서는 여섯 가지 수행덕목이라고 하여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보시이다. 보시, 희사, 베푸는 것은 이타적 행위로 불도수행의 '첫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색은 결국 이기주의가 되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다. '삼륜청정' 은 단순한 보시보다는 마음이 순수한 보시, 신심(身心)이 하나가 된 보시이다. 〈금강경〉에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라고 하여 '보시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보시,' '의식하지 않은 보시' 가 진정한 보시라고 선언한다. 우리는 대체로 남에게 보시, 기증, 희사(喜捨)하고 나서 주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렇다면 그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보시, 불순한 보시로서 청정하지 못하다.

우리는 대부분 소원이나 바람(願), 기대, 혹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얼마 동안은 보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주상보시' 란 보시했다는 관념을 갖지 말고 공(空)의 관점, 입장에서 보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순수하고 참다운 대승불교적인 보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은 고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타인에게 금전이나 물질, 또는 어떤 도움을 주고 나서 선행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행동,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작은 선행을 가지고 자신을 홍보하는 데 치중한다.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는데,' 또는 '돈을 얼마 주었는데' 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준다. 반대급부가 없을 때는 의리가 없다고 비난, 원망하기도 한다. 이런 건 소인이 추구하는 선행이다. 향기 나는 아름다운 보시나 희사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삼륜청정 가운데서 '보시를 받는 자(受者)' 도 받았다는 생각이나 관념을 갖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주상(無住相), 무집착, 즉 공의 관점에서 받으라는 것이다. 보시를 한 사람은 물론이지만, 받은 사람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보시나 도움을 받고 나서도 '감사하다' 는 생각이나 '고맙다' 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실 삼륜청정이 시사하는 바는 그래야만 진정한 보시가 된다고 말한다. 공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보시관, 대승불교 수행자들이 수행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보시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 물건이 싼 것이든, 보잘 것 없는 것이든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교양, 인격, 예의이다.

그리고 보시하는 물건은 깨끗해야 한다. 예컨대 사기 친 돈이나 절도한 물건 등을 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부정한 물건을 보시해서는 안 된다.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삼륜청정은 〈화엄경〉, 〈대반야경〉, 그리고 보조국사(普照國師, 1158~1210)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에도 나온다.

〈화엄경(58권)〉에는 "삼륜이 청정한 보시는, 베푼 자와 받은 자, 그리고 보시한 물건을 모두 허공과 같은 것(空)이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三輪淸淨施, 於施者, 受者, 及以施物, 正念觀察 如虛空故)"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반야경〉에는 "보시했다는 생각, 보시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보시의 결과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보시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삼륜청정(三輪淸淨)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마조 '할'에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먹다

〈喝〉



격절록 강설

⑨ 제3칙 백장불자(百丈拂子)

[古則과 着語]

擧, 百丈再參馬祖 (不唧溜漢) 侍立次 祖以目視禪牀角頭拂子 (兩箇一場敗闕) 丈云 "即此用 離此用" (情知泥裏洗土塊) 祖云 "你他後開兩片皮 將何為人" (也要知你落處) 丈取拂子竪起 (蝦跳不出斗) 祖云 "即此用 離此用" (驗人端的處 下口即知音) 丈挂拂子於舊處 (果然只在舊窠窟) 祖便喝 (輪王髻中珠 不可輕分付) 百丈直得三日耳聾 (雖然如是 若不酬價 爭辨真僞)

백장(百丈)이 마조(馬祖)를 재차 참례하고 [멍청한 놈이로군.] 모시고 서 있는데, 마조가 선상 모서리에 있는 불자를 쳐다보았다. [두 노장이 한바탕 낭패로다.]

백장이 말했다.

"이것은 용입니까, 용을 떠난 것입니까(即此用 離此用)?"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

마조가 말했다.

"그대는 장차 두 입술을 나불거리면서 뭘 가지고 사람들을 위할 것인가?" [역시 (그 말의) 낙처(落處, 핵심)를 알아야 한다.]

백장이 불자를 취해서 세웠다. [새우가 뛰어봤자 두레박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조가 말했다.

"이것은 용인가, 용을 떠난 것인가?" [사람을 시험해 보는 단적인 것은 입을 열 때 바로 소리를 알아버리는 것이다.]

백장이 불자를 원래 있었던 곳에 걸자, [과연! 단지 구태의연한 관념의 틀 속에 있을 뿐이다.]

마조가 바로 "할(喝)!" 했는데, [전륜성왕(輪王)의 상투 속의 구슬은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된다.]

백장이 바로 3일 동안 귀가 먹었다. [비록 이와 같지만, 만약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어찌 진위를 가려볼 수 있었겠는가.]

※선문염송집, 경덕전등록 등에서는 본 공안을 마조가 선상 모서리에 있던 불자를 들어 세운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용입니까, 용을 떠난 것입니까(即此用 離此用)?"라는 말은 전등록(6권, 홍주 백장산 회해 편)에서는 "다만 이것뿐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只遮箇 更別有)?"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백장불자화' 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으면서도 (앞부분의 내용을) 달리 전하고 있기에-원오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다음 회에 이어지는 평창에서 기술함)- 공안 후미의 '마조의 할' 에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먹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한다.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는 사천성 여강에서 대장경을 열람하고, 마조도일에게 참구하여 법을 이었다. 백장고청규(百丈古淸規)를 지어 선이 중국풍토와 생활에 토착화 되는데 기여하였다.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은 남악회양으로부터 법을 이었으며 강서를 중심으로 교화하였다. 호남을 중심으로 교화한 석두희천과 선계의 쌍벽을 이루었으며, 문하에 백장회해, 서당지장, 남전보원, 염관제안, 대매법상, 귀종지상, 분주무업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즉유(唧溜)는 빠르다, 영리하다, 민첩하다의 의미를 갖는다.(唧: 두런거릴 즉 / 溜: 낙숫물 류)

※낙처(落處)는 핵심, 귀착점, 긍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단적(端的)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을 의미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⑨ 믿음 편 9

여러 불보살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에 놀러간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대적광전(大寂光殿)' 이라 쓰인 법당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여러 불상과 보살상이 모셔져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불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는 석가모니 한분만 신앙하는 종교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대적광전에 모셔진 여러 불상을 보고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측에 노사나불과 약사여래, 우측에 아미타불과 석가모니불 총 다섯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법당에 모셔진 불상 가운데 석가모니불 이외에는 모두 생소한 이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들을 협시하고 있는 보살들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교조인 석가모니 이외에도 신앙대상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나 한국, 일본과 같은 대승불교 전통에서만 볼 수 있다. 스리랑카나 태국과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들은 오직 석가모니 붓다 한 분만을 신앙하기 때문이다. 신앙대상이 많아진 것은 초기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에 이르러 나타난 현상이다.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과 같은 대승경전 또한 붓다의 친설(親說)이 아니라고 해서 경전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대승불교에서는 역사적인 붓다를 확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즉, 붓다를 진리 그 자체인 법신(法身)과 중생들의 바람에 응하는 보신(報身),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직접 중생의 몸으로 이 땅에 온 화신(化身)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를 삼신불(三身佛)이라 한다. 대표적인 법신불로는 비로자나불이 있으며 보신불로는 아미타불과 약사여래, 화신불로는 석가모니불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간적으로 석가모니 붓다 이전에도 수많은 붓다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했다. 이를 과거7불, 혹은 25불 등으로 설명하였고, 미래불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역사적인 붓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방삼세(十方三世)에 두루 계신 새로운 붓다로 거듭난 것이다. 이는 초기불교의 일불설(一佛說)이 대승불교에 와서 다불설(多佛說)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붓다를 보좌하는 수많은 보살들을 헤아리면 신앙의 대상은 정말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불설이 등장한 것은 불교가 지니고 있는 성격으로 볼 때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승불교의 불성과 여래장 사상에서는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주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존재의 실상을 깨치기만 하면 부처가 되므로 깨친 수만큼의 부처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앙의 대상이 많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신앙의 대상이 많아진 현상을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실존과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기불교가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실존의 문제를 치유하는 일반병원이라면, 대승불교는 온갖 다양한 병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에 비유할 수 있다. 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승불교는 어떤 환자라도 수용하는 종합병원이었고, 그 병원에는 질병에 따라 맞춤형 의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중생들은 몸과 마음이 아플 때는 증상에 따라 약사여래를 찾았다. 자비심이 부족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관음보살을 찾았고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문수보살을 찾았다. 또한 입으로만 말할 뿐 실천이 부족할 때는 보현보살을 찾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미타불께 극락왕생을 빌기도 하였다. 종합병원에 장례식장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생들의 요구로 인해 불교는 다양한 신앙을 수용하게 되었다. 병원이 더욱 커져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허가 제 2017-10호 법인등록 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①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②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③ 차량등록 ④ 사암행정서식
⑤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일체서식
⑥ 민원에 도움 되는 서류 및 서식

입종구비서류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총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송천동) 천룡사 | 전화 054)823-6777 | HP 010-4053-2722